

고려인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작은 ‘사랑방’



이주민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아산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려인 아이들을 돕고 있다.

오랫동안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동해 온 이주민종합지원센터의 전득안 대표는 한국으로 이주해온 고려인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 고려인 아동들의 경우 한국말에 서툴고 한국 사회의 문화나 분위기에도 익숙하지 않았으며, 인맥과 같은 사회적 자본도 거의 없어 문화적 갈등과 정서적 혼란을 겪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전득안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고려인 아이들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2019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전득안 대표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부모나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려인 아이들의 위축된 마음을 보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다

고려인 아동은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려인 아동의 특성을 헤아린 교육 과정도 부족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도 많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자존감을 잃어가는 고려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이주 후 부모들의 열악한 삶으로 인해 가정 해체를 겪으면서 방치되는 안타까운 아이들도 있죠”라고 전득안 대표는 말했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고려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과 놀이, 댄스, 연극 등의 수업을 마련했다. 대상은 입국한지 1년 이상 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고학년 아이들 30여 명이었다.

아이들에게 가장 특별했던 프로그램은 연극 수업이었다. 평소 센터를 드나들면서도 한국말이 서툴러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연극 수업 시간에는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 연극 수업에 참여하도록 기다려줬다. 그리고 아이들을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개개인의 특성을 발견해, 장점을 이끌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수업 후 소규모 수업과 심리상담을 통해 메워나갔다. 아이들은 연극 수업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연극 수업은 물론 다른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는 고려인 아이들에게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인근에 위치해 있는 대학들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지역 내 대학생들을 멘토로 초청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멀게만 느꼈던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관인 잡월드를 방문해 우리나라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이들의 직업 선호도를 조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직업인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관, 유튜버 등 현업 종사자들을 직접 센터로 초청해 직업에 대해 체험해보기도 했다. 고려인 아이들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희망하는 직업을 꿈꿀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만큼 어려운 고려인 부모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고려인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늘 일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지 못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거의 못 쓰는 형편이었다. 초보 부모이기도 한 고려인 부모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면서 낯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부모들을 위한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1년차에 정규 교육과 소그룹 교육을 각각 5번씩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2년차에도 교육을 이어갔다.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도 실시했다. 아이들은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아빠와 함께 케이블카도 탔다. 아이들을 데리고 제대로 여행을 다닐 기회가 없었던 부모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난 고려인 아이들의 부모들은 ‘빛고를 고려인 어머니회’라는 봉사단을 만들었다. 안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고, 밖으로는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가정을 살피고 지지해주며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또한 카카오톡에 부모 대화방을 만들어 프로그램 활동 소식과 일정, 공지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아이들 역시 자조모임을 하면서 온라인 대화방을 만들어 소통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도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대화방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소소한 일상을 서로 공유하는 소통의 창이 되고 있다.

사업 3년차인 2021년부터는 특화된 리더십 교육 과정을 통해 고려인 아동들이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려인 아동의 자존감 회복과 성장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얻은 결과물과 성과를 토대로 매뉴얼과 센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문화적·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고려인 아동들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홍범도 장군 유해의 귀환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던 만큼, 귀환한 고려인들에 대한 더 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 길을 돌아 할아버지의 땅을 찾아온 고려인 아이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희망의 여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글 정재학



이주민종합지원센터가 마련한 고려인동포 가족사랑 가을캠프에 참여한 아이들.